韓國語史 硏究에 있어 口訣資料의 寄與에 대하여

南豊鉉*

要約

한국어의 15세기 이전 자료는 극히 빈약하였었다. 1975년 이후 고려시대의 字吐釋讀口訣과 点吐釋讀口訣 등이 발견되어 고려시대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게 되었다.

구결의 略體字는 신라시대에 이미 나타나는데 10세기의 자료에는 吏讀文의 吐表記에도 사용되었다. 이는 日本의 假名表記法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석독구결의 문법은 15세기의 문법과 크게 다르다. 動名詞語尾는 조사와의 결합, 體言의 修飾, 前提表現, 接續的 機能, 어말어미와의 결합, 被否定辭의 語尾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하였었는데 15세기에는 체언의 수식기능만이 남았다. 否定法은 명사문 부정법과 동사문 부정법이 구별되었다. 조동사는 동사의 어간에 직접 연결되었었는데 15세기에는 선어말어미로 바뀌었다. 또 ᄒᆞ/ᄂᆞ(現在時), ㅣ/다, 더(過去), ᄉᆞ/시(尊敬), 去/거(確認法)는 보조어간으로 어말에도 쓰였었는데 선어말어미로 바뀌었다. 조건법은 主題로 표현되었었는데 14세기에 '-면' '-거든'이 생기어 새로운 文法範疇로 발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釋讀口訣의 時代까지를 古代國語, 13세기 후반의 順讀口訣 時代부터를 中世國語로 구분하게 한다. 이로써 고대한국어의 記述도 내용이 풍부하여지게 된다.

* 檀國大 名譽敎授

핵심어: 釋讀口訣, 假名表記法, 動名詞語尾, 否定法, 助動詞, 補助語幹, 條件法, 古代國語.

1. 序言

1970年代까지 韓國語史의 硏究는 訓民正音 頒布(1446年) 以後에 나온 한글資料에 集中되어 있었다. 한글은 音素文字이어서 表音이 正確하고 비교적 많은 資料를 남겼으므로 그를 對象으로 한 연구가 韓國語史의 體系를 세우는 데 于先하였기 때문이었다. 한글 以前의 資料는 主로 漢字를 借用해서 表記한 것이어서 解讀이 어렵고 量이 극히 적었으므로 體系的인 硏究가 不可能한 것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러다가 1975년 舊譯仁王經의 釋讀口訣이 發見되어 公開되면서 한글 以前의 韓國語史의 硏究에 새로운 展望이 보이기 始作하였다.

三國時代(666年 以前)부터 統一新羅時代(666~935)와 高麗時代(1392年)를 거쳐 朝鮮王朝 初에 訓民正音이 頒布되기까지의 韓國語 資料는 그 긴 歲月에 비하면 극히 貧弱한 것이 알려져 있었다. 1975年 以前에 硏究者들이 주로 利用한 資料는 다음과 같다.

1. 三國史記 地理志의 三國의 地名(高句麗, 百濟, 新羅)
2. 吏讀(實用的인 散文 資料)
3. 鄕歌 25首
4. 鄕藥救急方; 藥材와 疾病 등의 鄕名
5. 鷄林類事; 北宋의 孫穆이 1103年頃에 記錄한 高麗語 語彙集
6. 朝鮮館譯語; 明의 會同館에서 15세기 초에 記錄한 朝鮮語 語彙集

1), 2), 3), 4)는 借字表記 資料이고 5), 6)은 中國人들이 中國의 漢字

音을 이용하여 記錄한 것이다. 口訣資料는 이 時期까지 順讀口訣 資料만이 알려져 있었다. 이는 訓民正音 頒布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내용이 한글資料가 알려주는 言語事實에 더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었다.

口訣은 漢文을 韓國式 讀法으로 읽는 것을 말하는데 그 讀法의 結果로 생겨난 韓國語도 包含한다. 漢文을 韓國式으로 읽을 때 漢文의 行間에 韓國語의 助詞, 語尾, 末音添記를 添加하는데 이를 吐라고 한다. 대체로 口訣은 日本의 訓讀과 訓點語에 해당하고, 吐는 訓點에 해당한다.

口訣 資料는 1975年 이후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口訣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음이 밝혀졌다. 우선 漢文을 韓國語로 解釋하여 읽는 釋讀口訣과 漢文을 漢文의 順序대로 音讀하면서 句讀에 해당하는 곳에 吐를 添加하여 읽는 順讀口訣로 나눌 수 있다. 釋讀口訣은 吐를 文字로 表記한 字吐釋讀口訣과 漢字를 4角形으로 보고 그 內外에 点이나 線으로 吐를 표시한 点吐釋讀口訣로 구별된다. 順讀口訣도 字吐와 点吐로 표기한 것이 구별된다. 字吐口訣은 文字吐만을 사용하고 点吐口訣은 点吐만을 사용하여 서로 混用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심지어 同一 文獻 안에 字吐口訣과 点吐口訣이 함께 쓰였어도 字吐와 点吐를 섞어 사용하지 않는다.

字吐釋讀口訣 資料는 10世紀 中葉(960年代 推定)의 것이 있으나 이는 2行 未滿의 적은 量이고 11세기 후반에서부터 13세기 중엽까지의 자료가 5点 발굴되었는데 이것이 韓國語史 硏究에서 중요한 價値를 갖는 것이다. 다음이 그것이다.

華嚴經疏 卷35(11世紀 末 추정)
華嚴經 卷14(12世紀 前半期 추정)
合部金光明經 卷3(13世紀 前半期 추정)
舊譯仁王經 上 落張 5枚(13世紀 前半期 추정)

瑜伽師地論 卷20(1246年 以後 13世紀 中半 추정)

点吐釋讀口訣은 新羅時代의 것으로 추정되는 佐藤本 華嚴文義要決이 있으나 이는 日本人에 의하여 記錄된 것이다. 2000년 여름에 点吐釋讀口訣이 처음 발견되었는데 주로 角筆로 기록된 것이다. 현재 10세기에서 12세기 전반기에 걸쳐 간행된 佛經 資料가 모두 13卷이 발굴되어 있다. 順讀口訣은 13세기 말에서 15세기 초까지의 佛經 資料가 16종 이상 發掘되었다. 이 順讀口訣은 前期中世語 資料인데 古代語와 訓民正音 創制 이후의 15世紀語를 이어주는 자료이다.

이 口訣資料의 발굴과 더불어 三國時代에서부터 朝鮮 初期에 걸치는 吏讀資料가 적지 않게 새로 발굴되어 口訣과 함께 유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2. 口訣과 文字 · 表記法의 發達과의 關係

古代韓國語의 表記法은 漢文의 讀法인 口訣의 發達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三國時代인 6세기의 金石文에 이미 漢字의 訓을 이용하여 官等名이나 文章을 표기한 예를 볼 수 있다. 漢字의 訓을 이용하여 단어나 문장을 표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漢文의 釋讀法이 발달되어 있어 이를 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대의 吏讀의 發達도 漢文讀法의 發達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口訣字는 漢字(借字)의 劃이 단순한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入/ᄃᆞ, 火/블ㅣ, 去/거 등), 劃이 복잡한 것은 그 楷書體나 草書體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딴 略體字를 쓴다. 이 略體字는 8세기의 吏讀文에 이미 쓰이고 있다. 尒(彌)/금, 乃(那)/나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아마도 口訣에서 쓰이던 것이 吏讀文의 표기에 轉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최근에 공개된

佛國寺의 无垢淨光塔 重修記(1024)와 西石塔 重修 形止記(1038)에서는 吏讀文의 吐에 '分/며, ᄀᆞ/아'와 같은 口訣의 略體字를 사용하였고 '等/ᄃᆞᆯ, 是/이, 乎/오'에 해당하는 吏讀字도 略體字의 원리에 따라 省劃된 字體로 쓰였다. 이는 日本의 片假名의 쓰임과 같은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新羅時代의 鄕札은 韓國語의 助詞, 語尾, 助動詞 등을 거의 생략하지 않고 표기한 것인데 이는 釋讀口訣의 表記法을 轉用한 것이다. 釋讀口訣을 韓國語의 語順으로 풀어 놓고 그것을 單語 單位로 보면 '表意字 + 表音字'의 構成이 되는데 이 構成은 鄕札의 표기와 일치한다. 이는 鄕札이 釋讀口訣을 母胎로 하여 발달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口訣은 日本의 漢文訓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釋讀口訣이 발견되기 전에는 韓國의 口訣字(略體字)가 日本의 假名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호 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韓國의 順讀口訣과 日本의 漢文讀法은 차이가 커서 그 관계를 드러내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1975년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이 알려지면서 韓國에서도 高麗時代 이전에는 漢文을 釋讀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上代에는 韓日 兩國의 漢文讀法이 매우 類似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字吐釋讀口訣의 표기는 口訣字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假名点과 오코토点을 함께 사용하는 日本의 漢文訓讀의 表記 樣式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생각하였었다. 그러다가 韓國에서 点吐釋讀口訣이 발견되고 그 點圖가 學派(또는 宗派)에 따라 달리 쓰인 것이 日本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확인되면서 韓國의 釋讀口訣과 日本의 漢文訓讀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향의 授受關係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3. 釋讀口訣과 15世紀 韓國語의 文法 對比

釋讀口訣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古代韓國語의 文法은 鄕歌의 文法에 의지하여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그 量이 빈약하여 古代語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鄕歌는 言語的인 資料이기도 하지만 文學的으로도 귀중한 資料이므로 1929年 小倉進平博士의 發掘과 硏究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해독하려는 試圖를 하여 왔다. 그러나 그 言語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가 15세기의 한글 創制 이후의 것이므로 그 言語現像을 밝히기는 극히 어려웠었다. 이에 비하여 釋讀口訣은 10세기에서 13세기에 걸치는 자료이므로 15世紀語보다는 400년 내지 200년 더 遡及할 수 있고 그 量이 비교적 많은데다가 鄕札表記의 母胎가 되는 것이어서 古代韓國語의 文法을 밝히는 데는 더 없이 귀중한 價値를 갖는다.

吏讀는 三國時代인 高句麗(9種), 百濟(2種), 新羅(20餘種)의 것이 알려져 있으나 斷片的이어서 韓國語에 대하여 알려 주는 情報는 희소하다. 統一新羅時代의 것이 25종, 高麗時代의 것이 60여종이 알려져 있으나 文法形態의 表記가 불완전하여 이는 釋讀口訣을 통하여 추정하여 보충하여야 한다. 따라서 吏讀의 解讀에도 釋讀口訣의 文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이제 字吐釋讀口訣이 보여 주는 文法을 中世韓國語와의 比較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口訣資料가 韓國語史의 연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價値를 갖는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1) 動名詞語尾 -ㅣ/ㄴ과 -ᄀᆞ/ᄆᆞ의 文法

15世紀語의 動名詞語尾는 '-옴/움'이 주로 助詞와 결합하여 쓰였었다. 釋讀口訣에서는 이 '-옴/움'의 動名詞形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대신 -ㅣ/

ㄴ과 -ㅁ/ㄹㅎ이 다양한 기능으로 쓰여 큰 차이를 보인다.

代動詞 ᄒᆞ/hʌ-를 보충하여 動名詞形態와 그 뜻을 보이기로 한다.

	-ㄱ/ㄴ 動名詞	ㅁ/ㄹㅎ 動名詞
1. 助詞와의 結合		
1.1. 格助詞와의 結合		
1.1.1. 屬格(有情物體言);	ᄒᆞᄂᆞᆞ/	ᄒᆞᄆᆞᆞ/
	혼ᄋᆡ(한 이의)	홇ᄋᆡ(할 이의)
1.1.2. 屬格(無情物體言);	ᄒᆞᄇᆞᄀᆞᆺ/혼ᄃᆞᆺ(한 것의)	
1.1.3. 對格;	ᄒᆞᄀᆞᆯ/혼ᄋᆞᆯ(한 것을)	ᄒᆞᄆᆞᆯ/
		홇ᄋᆞᆯ(할 것을)
1.1.4. 處格;	ᄒᆞᄀᆞᄃᆞᆨ/	
	혼ᄋᆡ게(한 것에)	
1.1.5. 造格;	ᄒᆞᄀᆞᄂᆞᇫ/	ᄒᆞᄆᆞᄂᆞᇫ/
	혼ᄋᆞᆯ로(한 것으로)	홇ᄋᆞᆯ로(할것으로)
1.1.6. 共同格;		ᄒᆞᄆᆞᄉᆞ/
		홇과(할 것과)
補助詞와의 결합		
1.2.1. 主題;	ᄒᆞᄀᆞᄀᆞ/혼ᄋᆞᆫ(한 것은)	ᄒᆞᄆᆞᄀᆞ/
		홇ᄋᆞᆫ(할 것은)
1.2.2. 亦是;	ᄒᆞᄀᆞᄁᆞ/혼도(한 것도)	ᄒᆞᄆᆞᄁᆞ/
		홇도(할 것도)
1.2.3. 强勢;	ᄒᆞᄀᆞᄉᆞ/혼사(한 것이야)	
1.3. 繫辭와의 결합	ᄒᆞᄀᆞᄫᆞ(ㅣ)/	
	혼이며(한 것이며)	
2.名詞의 修飾		
2.1.	ᄒᆞᄀᆞ 甚深法/혼 甚深法	ᄒᆞᄆᆞ 十二大衆/
		홇 十二大衆
2.2.	ᄒᆞᄀᆞ 所 / 혼 바(한 바)	ᄒᆞᄆᆞ 所ᄉᆞ/
		홇 바(할 바)
2.3.	ᄒᆞᄀᆞ ᄉᆞᆺ / 혼 디(한 것이)	ᄒᆞᄆᆞ ᄉᆞᆺ/
		홇 디(하는 것이)

3. 語末語尾와의 結合

3.1. ᄒᆞᆫ여(한 것이다.) ᄒᆞᄆᆞᆫ여(할 것이다) ᄒᆞᄆᆞᆷ며(할 것이며)

4. 前提表現

4.1. 謂ᄀᆞ/닐온(이른바) 廣ᄇᆡ 說ᄆᆞ/너비 닐옳(넓게 말하면)

4.2. 略ᄆᆞᄀᆞ/略곤(略하여서) 問ᄒᆞ 言ᄂᆞᄆᆞ/물어 나이싫(물어 이르시길)

4.3. 何以故ᄂᆞᄉᆞᄆᆞᄀᆞ/何以故여 ᄒᆞ곤(왜냐 하면) 思惟ᄉᆞᄉᆞᄆᆞ/思惟ᄒᆞ겷(思惟하기를)

5. 接續的 機能

5.1. a. ᄉᆞᄒᆞᄉᆞᄀᆞ/ᄒᆞ아 ᄒᆞᆫ(하니)
b. ᄉᆞᄂᆞ ᄉᆞᄀᆞ/ᄒᆞ시 ᄒᆞᆫ(하시니) ᄉᆞᄆᆞᄃᆞᄂᆞᄆᆞ而ᄆᆞ/ᄒᆞᆷ더 ᄒᆞᆷ 而(한다 하되)

5.2. ᄉᆞᄃᆞᄀᆞ/ᄒᆞ건(하니)

5.3. 復(亦)ᄉᆞᄀᆞ/또ᄒᆞᆫ(또한)

6. 否定法에서의 被否定辭

6.1. ᄉᆞᄀᆞ 不ᄉᆞᆺ-/ᄒᆞᆫ 안디-(한 것이 아니-) ᄉᆞᄆᆞ 不(非)ᄉᆞᄒᆞᄉᆞ-/ᄒᆞᆷ안ᄃᆞᆯᄒᆞ-(하지 아니 ᄒᆞ-)

6.2. ᄉᆞᄀᆞ 不ᄒᆞᄉᆞ-/ᄒᆞᆫ 안ᄃᆞᆨ ᄒᆞ ᄉᆞᄆᆞ 不ᄒᆞᄉᆞ-/ᄒᆞᆷ 안ᄃᆞᆨ ᄒᆞ-

6.3. ᄉᆞᄀᆞ 無ᄂᆞᆨ-/ᄒᆞᆫ 없 ᄉᆞᄆᆞ 無ᄂᆞᆨ-/ᄒᆞᆷ 없-

-ᄀᆞ/ㄴ은 旣定의 事實을 나타내고 -ᄆᆞ/ㅁ은 未定이나 眞理的 事實을 나타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의 예들은 이들 두 형태가 서로 竝行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나타냄을 보여 준다. 이들 기능은 鄕歌에서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15世紀語에 오면 거의 없어지고 다만 2)의 '名詞의 修飾' 기능만이 남아 現代語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變化는 불과 200

년 사이에 文法的으로 현저한 變化가 있었음을 말하여 준다.

2) 否定法의 變化

釋讀口訣의 否定法과 15世紀語의 否定法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釋讀口訣의 否定法에서는 名詞 否定法과 動詞 否定法의 구별이 있었다.

2.1. 名詞 否定法

2.1.a. 名詞 + 不矣/안디(否定辭) + ㅣ/이-(繫辭)
生 不矣分/안디며 起 不矣分/안디며(生이 아니며 起가 아니며)<華嚴經疏卷35, 19>
內 非矣分/안디며 外 非矣分/안디며(內가 아니며 外가 아니며)<華嚴經疏卷35,13>

2.1.b. 動詞語幹 + -ㄱ/ㄴ(動名詞語尾) + 不矣/안디(否定辭) + ㅣ/이-(繫辭)
我 非矣分 堅固ㅅㄱ 非矣分(我가 아니며 堅固한 것이 아니며)<華嚴經疏卷35,18>

2.2. 動詞 否定法
動詞語幹 + -ㅁ/ㅁ(動名詞語尾) + 不多/안ᄃᆞᆷ(否定辭) + ㅎ/ᄒᆞ-(代動詞)
捨ㅅㅁ/ᄇᆞᆷ 不多ㅅㅁㅜ/안ᄃᆞᆷ ᄒᆞᆷ뎌(捨하지 아니할지라)<華嚴經疏卷35,14>

이에 대하여 15世紀語의 否定法에서는 名詞否定法과 動詞否定法의 구별이 없이 否定辭 '아니'만이 쓰이고 添辭 '矣/디'와 '多/ᄃᆞᆯ'도 기능상의 차이가 없이 動詞語幹으로 올라가 붙는다.

<15세기어의 否定法>
2.3 名詞否定法; 名詞 +아니 +繫辭
2.4 動詞否定法; a) 動詞語幹 +디 + 아니 + 代動詞 ᄒᆞ-
b) 動詞語幹 +ᄃᆞᆯ + 아니 + 代動詞 ᄒᆞ-

2.4)의 a)와 b)는 어미 '-디'와 '-ᄃᆞᆯ'의 차이가 있으나 이들은 機能上의 차이가 없이 動詞의 否定法에 쓰였다.

이는 否定法에서 名詞否定과 動詞否定을 구별하여 주던 動名詞語尾 -ㄱ/ㄴ과 -ᄆᆞ/ᄆᆞᆷ이 消滅되고 '디'와 'ᄃᆞᆯ'이 기능상의 차이가 없이 否定法의 屈折語尾로 바뀌어 動詞語幹에 올라가 붙은 것이다. 이 역시 釋讀口訣의 文法이 15세기로 오면서 큰 變化를 겪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3) 助動詞 用法의 變化

15紀語에서 本動詞와 助動詞는 文法的 形態를 媒介로 하여 연결된다. 대체로 語尾 '-아, -게, -디, -고'를 매개로 한다. 그러나 釋讀口訣에서는 本動詞의 語幹에 助動詞가 直接 連結되기도 한다. 15世紀語에서 動詞의 語幹과 語幹이 직접 結合되는 것은 複合語 構成의 文法으로서 生産性이 약한 것이었는데 釋讀口訣에서는 이 結合이 普遍的이었다. 그리하여 動詞의 語幹과 語幹의 結合이 2重, 3重으로 가능했었다. 일례로 '言白ナᄆᆞ丁/나이 ᄉᆞᆷ 겯 뎌'를 분석하면 '言/나이-'는 本動詞語幹, '白/ᄉᆞᆷ-'은 謙讓의 助動詞, 'ナ/겨-'는 持續相의 助動詞, '-ᄆᆞ丁/ᄆᆞᆷ 뎌'는 終結辭인데 動詞 셋이 語幹과 語幹의 結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세기의 先語末語尾는 이 조동사에서 발달한 것이 여럿 있다.

4) 先語末語尾의 發達

15世紀語에서는 用言의 語幹과 語末語尾 사이에 연결되는 文法形態가 있어 이를 先語末語尾라고 부르고 있다. 'ᄒᆞᅀᆞᆸ더시니'에서 -ᅀᆞᆸ-(謙讓), -더-(過去), -시-(尊敬)가 先語末語尾이니 이들은 어간 ᄒᆞ-와 語末語尾 -니 사이에 들어간 것인데 이들은 連結에 있어 一定한 順序가 있고 先語末의 位置를 벗어나지 않았었다.

이 가운데 ᅀᆞᆸ(<白/ᅀᆞᅀᆞᆸ-)은 釋讀口訣과 吏讀에서는 助動詞로 쓰였고 그 밖의 어미는 다음과 같이 語末에도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4.1. 無ㅣᄂᆞᆫᄃᆞ + 非ㅣ矣<華嚴經14, 9>
4.2. ᄂᆞᆡ + ᄒᆞ白ᄒᆞᆫᄀᆞ<舊譯仁王經, 11>
4.3. 得ᄒᆞ + ᄂᆞᆫᄀᆞ<舊譯仁王經, 3>
4.4. 事是去 + 有在亦<柳璥尙書都官貼, 1262年, 吏讀>

4.1)의 ᄂᆞᆫ/ᄂᆞ(現在時), 4.2)의 ᆡ/다(過去), 4.3)의 ᄒᆞ/시(尊敬), 4.4)의 去/거(確認法) 등은 모두 15世紀語에서는 先語末語尾로 쓰인 것인데 여기서는 語末語尾로 쓰이고 있다. 이 語尾들은 古代韓國語에서는 語末語尾로서 더 널리 쓰였을 것이지만 釋讀口訣에서는 이미 退化하여 제한된 範圍에서 쓰이고 있다.

5) 條件法(假定法) 表現 樣式의 發達

古代語에서는 條件法을 나타내는 一定한 形式이 없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형식을 빌어 文脈에 따라 條件法을 표현하였다.

5.1.a. 爲者/ᄒᆞᆫᄋᆞᆫ
1.b. ᄒᆞᆫᄀᆞᆫ/ᄒᆞᆫᄋᆞᆫ
5.2.a. ᄒᆞᆫᄃᆡ+/ᄒᆞᆫᄃᆞ기
2.b. ᄒᆞᆫᄃᆡ+ᄀᆞᆫ/ᄒᆞᆫᄃᆞ긘
5.3.a. -ᄒᆡ/히
3.b. ᄒᆞᄆᆞᄒᆡ/ᄒᆞ며히
5.4. ᄒᆞᄆᆞᆫ/ᄒᆞ면

5.1a)의 '爲者/ᄒᆞᆫᄋᆞᆫ'은 8世紀의 吏讀文에 나타나는 條件法 形態이고 5.2b)의 'ᄒᆞᆫᄀᆞᆫ/ᄒᆞᆫᄋᆞᆫ'은 釋讀口訣에 나타나는 條件法 形態이다. 1a)의 '爲/ᄒᆞᆫ/ᄒᆞᆫ'과 1b)의 ᄒᆞᆫ은 動名詞이고 그 뒤의 ᄀᆞᆫ/ᄋᆞᆫ은 主題를 나타내는 助詞이다. 이는 古代부터 13世紀까지 主題表現에 의지하여 條件法이 表現되고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5.2a)는 ᄒᆞᆫ(動名詞) + ᄃᆡ+[ㅅ/ᄃᆞ(의존명사) + ᄋᆞ+/아기(처격조사)]의 結合이니 결국 處格形態로 條件法을 표현한 것이다. 5.2b)는 5.2a)에 主題의 助詞 'ᄀᆞᆫ/ᄋᆞᆫ'을 添加하여 條件法을 表現한 것이다. 5.3a)는 14세기의 順讀口訣에 나타나는 것이다. '-ᄒᆡ/히'는 副詞派生의 接尾辭이니 이는 副詞語로서 條件法을 표현한 것이다. 5.3b)의 'ᄒᆞᄆᆞᄒᆡ/ᄒᆞ며히'는 부사 'ᄒᆞᄆᆞ/ᄒᆞ며'에 다시 副詞派生의 接尾辭 '-ᄒᆡ/히'가 첨가된 것이니 이 역시 副詞語로서 條件法을 表現한 것이다. 'ᄒᆞᄆᆞ/ᄒᆞ며'의 'ᄆᆞ/며'는 釋讀口訣에 나타나는 부사 善ᄆᆞ, 能ᄆᆞ에서의 ᄆᆞ와 같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5.4)는 條件法의 連結語尾 '-ᄆᆞᆫ/면'이 13世紀 末의 順讀口訣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예를 보인 것이다. 이는 12世紀 末頃에 '-ᄆᆞ(ᄒᆡ)'에 主題의 助詞 'ᄋᆞᆫ'이 添加되어 條件法을 나타내는 連結語尾 '-면'이 발달한 것임을 말하여 준다. 이 '-면'은 'ᄒᆞᆫᄃᆡ+ᄀᆞᆫ/ᄒᆞᆫᄃᆞ긘'에서 발달한 'ᄒᆞᆫᄃᆞᆫᄀᆞᆫ/ᄒᆞᆫ댄'과 함께 15세기까지 共存하였으나 결국 '-면/면'으로 통일되어 現代語에 이르고 있다.

6) 釋讀口訣과 韓國語史의 時代區分

이제까지 설명한 것은 釋讀口訣의 文法이 보여 주는 몇 가지 特徵을 든 것이다. 釋讀口訣의 文法에는 이밖에도 15世紀語와 차이를 보이는 예들이 많이 있다.

釋讀口訣이 보여 주는 이들 現像을 근거로 韓國語史의 時代區分도 새로 생각하게 되었다. 종래 유력한 韓國語史의 時代區分은 三國時代(~666年)까지는 先史時代, 統一新羅時代 300년은 古代, 高麗時代(937)부터 14世紀 末까지 약 450년은 前期中世, 15世紀 初부터 16世紀 末까지 200년을 後期中世로 보는 것이었다.

釋讀口訣을 통한 時代區分은 13世紀 中葉의 釋讀口訣 時代까지를 古代로 보고 그에 이어지는 13世紀 後半의 順讀口訣부터 中世로 보는 것이다. 韓國語의 歷史에 있어 이 두 口訣의 時代만큼 言語的으로 큰 차이를 보여 주는 예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분하면 古代語도 3分을 하게 되어 三國時代를 上古, 統一新羅 時代를 中古, 高麗初에서부터 13세기 中葉까지를 近古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13世紀 後半에서부터 15세기 한글 頒布(1446) 前까지를 前期中世, 그 이후 16세기 末까지를 後期中世로 보게 된다.

韓國語史의 時代區分을 이와 같이 하면 上古부터 前期中世까지를 대체로 300년을 단위로 끊어서 볼 수 있게 되어 時間的으로도 均衡이 맞는다. 또 釋讀口訣이라는 양질의 자료를 바탕으로 古代韓國語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이 트여 古代韓國語의 기술이 풍요롭게 된다.

4. 結語

口訣資料는 韓國語史 硏究에서 커다란 가치를 갖는 것이지만 이것이

提起하여 주는 問題도 적지 않다.

우선 현재 發掘된 口訣資料의 量이 너무 적은 것이다. 따라서 이 口訣資料가 나타내는 言語가 어떠한 性格인지 究明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近古語의 동명사어미 ㄱ/ㄴ, ᄆᆞ/ᄠᅳᆷ이 中世語의 -옴/움으로 이어지는 계기나 과정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그 한 예이다. 釋讀口訣과 中世語 사이에는 이와 같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口訣은 師弟間에 傳承되는 것이어서 그 言語는 上代의 言語를 保守的으로 反映하고 있을 것이다. 또 釋讀口訣은 漢文을 逐字的으로 解釋하여 읽은 것이므로 실제의 言語에서 보면 剩餘的인 要素도 다분히 包含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消去하고 당시의 口語의 모습을 찾는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釋讀口訣과 대조해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文學語 資料가 없는 데서 오는 제약이기도 하다.

点吐口訣은 그 解讀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字吐釋讀口訣이 提供해 주는 情報 以上을 넘지 못하고 있다. 点吐口訣의 点吐가 多樣하게 쓰였어도 点吐口訣이 제시하는 吐의 범위를 넘어서면 解讀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자료의 양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지만 字吐口訣과 点吐口訣의 사용이 엄격히 구분되어서 서로 混用되지 않은 것도 한 原因이다.

釋讀口訣과 그 다음 時代로 이어지는 順讀口訣을 對照하는 硏究도 停滯된 상태에 있다. 13世紀 後半에서 15世紀 前半期로 이어지는 資料는 새로 발굴될 可能性이 매우 높다. 이 資料들을 발굴하고 硏究하는 것도 앞으로의 課題이다.

新羅時代에는 薛聰이 儒家의 九經을 韓國語로 읽었고 그것이 14世紀 末까지도 傳承되고 있었다는 史書의 記錄이 있다. 이는 儒家의 標準的인 釋讀口訣이 늦어도 8世紀 初에는 成立되어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이지만 현재 전하는 것이 전혀 없다. 薛聰에 앞서 佛家에서도 釋讀口訣

이 存在하였음을 推定케 하는데 앞으로 이 方面의 資料들이 발굴되어 古代韓國語史가 좀더 풍요롭고 정확하게 記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 이 글은 2009년 5월에 日本의 訓點語學會 第100回 硏究發表會에서 基調講演을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일본어로 번역하여 學會誌『訓點語と訓點資料』123輯에 실었었다. 그 후 이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같은 해 12월 Hawaii 大學에서 개최된 제19차 Japanese/Korean Linguistic Conference에서 발표하였었던 것이다. 한국의 구결을 국제적으로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다시 싣기로 한다.

參考文獻

남풍현(1999),『國語史를 위한 口訣硏究』, 태학사
———(2000),『吏讀硏究』, 태학사
———(2009),『古代韓國語硏究』, 시간의 물레

[137-884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709-3 양지원빌딩 5층]
E-mail: namph@empal.com
접수일자: 2010. 07. 05.
심사일자: 2010. 07. 06.
게재결정: 2010. 07. 16.

韓国語史研究における口訣資料の寄与について

南豊鉉

韓国語の15世紀以前の資料は極めて乏しいものであった。1975年以後高麗時代の字吐釈読口訣と点吐釈読口訣などが発見されてからは高麗時代の言語について体系的な記述をすることが可能となった。

口訣の略体字はすでに新羅時代の資料にも現れたものであるが、10世紀の資料には吏読文の吐表記にも用いられていた。これは日本の仮名表記法の発達と軌をいつにするものである。釈読口訣の文法は、15世紀の文法と著しく異なる。動名詞語尾は、助詞との結合、体言の修飾、前提表現、接續的機能、語末語尾との結合、被否定辞の語尾など様々な機能を担ってきたが、15世紀には体言の修飾機能だけが残った。否定法は名詞文の否定法と動詞文の否定法に分けられていた。助動詞は動詞の語幹に直接連結されたが、15世紀には先語末語尾にかわった。また ᄒᆞ/ᄒᆞᄂᆞ(現在時), ㅣ/ᄂᆞᆨ/ᄃᆡ(過去), ᄂᆞᆷ/ᄉᆡ(尊敬), 去/ᄀᆞ(確認法)は補助語幹としても語末にも使われたが、先語末語尾にかわった。条件法は主題として表現されていたが、14世紀には'ㅡ면' 'ㅡ거ᄂᆞᆫ'ができ、新しい文法範疇として発達した。

こうした事実から釈読口訣の時期までを古代國語、13世紀後半の順読口訣時期からを中世國語と区分することができる。これによって古代國語の記述もその内容が豊かなものになるであろう。

キーワード ； 釈読口訣, 仮名表記法, 動名詞語尾, 否定法, 助動詞, 補助語幹, 條件法, 古代国語.